

어느 도서관장의 하루

조 하 식*

경 기도 중소도시에 위치한 남자고등학교. 그 곳에서 12년 째 국어를 가르치며 살아가는 내게 올해부터 도서관장이라는 직책이 맡겨졌다. 말하자면 12년만에 다시금 사서가 된 셈이다(필자는 여기에 오기 전 여덟 해 가량을 학교도서관에 있었다). 기실 다른 교사와 마찬가지로 두세 과목을 가르치며 학급을 떠맡는 일 대신에 맡겨진 임무치고는 자질구레한 잔무가 과중한 것이 사실이다.

도서관으로 돌아온 지 벌써 두 학기 째. 나는 통상 아침 7시 반이 채 안 돼 출근한다. 허술한 이중문을 따고 들어와 서고를 한 바퀴 돌아 나와 창문을 연다. 자리에 앉자마자 컴퓨터를 켜다. 밤새 이메일이 여러 통 와있다. 책상위에는 어젯밤 열 시가 넘도록 기안한 문서 일체와 감사보고건에 대한 결재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수업시간표를 보니 2-4-6교시. 골고루 분포돼 있

어 픽 다행이다. 전국을 강타한 눈병 탓으로 아직은 보충수업이랑 야간자율이 없으니 그나마 숨돌릴 만한 틈새가 생긴 참이다.

담임을 맡은 한 명의 협력교사가 도우미로서 포진해 있기는 하나, 기획과 결재는 속이 뻐한 나의 몫. 결재는 일단 이른 시간일수록 여러모로 유리하다. 우선 행정실장님과 교감선생님을 찾아가 이제 막 출발하는 연체료부과 건에 대해 취지를 설명한다. 내리 교장선생님까지 그대로 시행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진다.

실상 작년까지는 무책임하게 마냥 반납지연을 되풀이한다한들 이렇다할 제재요건이 마뜩치 않았다. 하여 일을 맡은 이상에는 제대로 해보자는 뜻에서 장부를 한 개 더 추가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말하자면 자청하여 잡무를 하나 더 늘린 격이랄까. 책을 통해 지식과 교양을 쌓으려 바지런히 발걸음하는 대견한 아이들임에도, 개중에는 졸업할 때까지 대출 받은 책에 대해 끝내 감감 무소식인 걸 보노라면, 전반적으로는 예전보다 책임감이 현저히 떨어져 가는 풍조가 못내 안타깝다.

2 교시 수업은 1학년 국어. 아이들의 눈망울이 오늘따라 유난히 초롱초롱하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국어가 걸어온 길”. 학기초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이란 글과 잘 연계된 단원편성이다. 황소개구리를 선볼리 들여와



공주중학교 선진도서관 방문기념(상단 좌로부터 조하식, 장효기 선생님, 도서반 학생들)

* 한광고등학교 교사, 수필가·수필집 <주님과 동행한 오솔길>, <생각만큼 보이는 세상> E-mail : johs@kebi.com

생태계를 교란시켰던 어리석은 전력을 들어, 우리말이라고 해서 영어에 잠식당하지 말란 법이 없다는 주제에서 출발하여, 우리말의 역사를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취지로 설정된 글이다.

저자의 목소리인즉 '우리말 바로 세우기'. 우리 글자가 없었던 때의 불편함을 되짚으며 초점을 한글의 우수성에 맞춘다. 아울러 네티즌들이 무분별하게 쓰는 컴퓨터통신용어의 잘못을 맹렬히 지적한다. 언어는 곧 각자의 생각인고로 삶의 방식을 지레 잘못 결정할 수도 있다고 역설한다. 결국 어떤 문화적 풍토에서 살아가느냐의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 있음을 힘주어 설명하다 보니 끝종이 울린다.

그렇듯 4교시 수업을 마친 다음 아내가 정성껏 챙겨준 도시락으로 조출한 점심을 든다. 조금 있으려니 급식을 마친 학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도서관으로 몰려온다. 물론 매 시간 쉴 적마다 적지 않은 숫자가 끊임없이 들락날락대긴 하지만, 저마다 신간과 잡지코너에 들러붙어 책을 고르기에 여념이 없다. 어떤 아이들은 열람실 한쪽 구석을 차고앉아 학과공부에 열중이다.

아 차, 그리고 보니 미처 3학년 교재를 봐 두지 않았다. 부리나케 오후 수업준비를 서두른다. 3학년 이과반의 문학수업. 때는 배고파 넘긴 음식이 완성하게 소화되는 시간. 때 마침 남향 유리창을 강렬히 파고드는 이른 가을의 햇볕이 제법 따갑다. 이윽고 적당히 달궈진 따뜻한 기운이 나른함으로 바뀐 채 교실 안을 맴돌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무리 채근하고 달래본들 쏟아지는 졸음 앞에서는 누구라도 막무가내. 그렇더라도 예정한 진도만큼은 해야 한다. 어렵사리 '항가'를 끝내고 나니 마치기 일본 전이다.

자리에 돌아와 앉으니 기특하게도 쉬는 시간

을 틈타 대출을 신청하러 온 아이들이 와있다. 출납에 관해서는 도서부원들에게 업무를 떠넘겨 놓았으나, 아직 원활하질 않으니 나라도 선뜻 나서서 봉사할 차례. 지혜가 담긴 책 속으로 친절히 안내하며 한 주간 동안 빌려준다. 이제야말로 막간이나마 쉬겠구나 싶었는데 다시금 선생님 한 분이 반납과 대출을 동시에 부탁한다. 가벼운 담소를 나누며 처리해 드리고 나니, 눈앞에 또 하나의 기안거리가 피곤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먼저 묻은 손을 씻을 겸 화장실에 들른다. 간김에 교직원 공지사항을 살피러 교무실에 들렀더니 때마침 복사기를 수리하는 기사분이 와 있다. 아주 잘 됐다 싶어 도서관용을 묶어 부탁하며, 차체에 고장난 프린터까지 손봐 주십사 요청했더니 흔쾌히 응낙한다. 그렇지만 급히 뜨는 밥에 채한다던가. 절차에 불쑥 하자가 생겨난 게다. 상호가 표시된 제품은 반드시 해당 서비스센터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어길 수 없다는 실무자의 방침 때문이었다. 아 또 결재라니, 하지만 업무지침이 그렇다니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서둘러 세 번째 기안을 하다 문득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낡은 도장들을 바꾸자. 내친 김에 열람실의 커튼이며 핏말에다 북캐리어까지 신청목록에 전격 포함시키기로 했다. 작성을 꼼꼼히 끝내고 얼른 두 분 관리자께 결재를 득한 후, 행정실을 찾아 재삼 예산상의 양해를 구한다. 의외다시피 쉬이 결재가 난다. 드디어 그간의 미제가 한꺼번에 풀린 폭이다.

아 직도 한 건이 더 남았다. 오전 나절에 교장선생님께서 부탁하신 '출판기념회 축하사'를 마저 써 드려야 한다. 곧바로 머리를 짜내

기어코 A4 한 장 분량의 기념사를 다듬어 넘겨 드리고 나니 그제서야 속이 후련하다. 나란 사람은 본시 타고난 성정이 할 일을 저만치 미뤄놓고는 도저히 못 배기는 축복을 타고났나 보다.

조금 앉아있으려니 종례를 마친 아이들이 청소하러 들어온다. 여기저기 서가와 열람실 바닥에 종점을 두어 시켜보기는 하나, 여전히 일일이 감독하고 채근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 제대로 이뤄지질 않는다. 어떨 때는 차라리 내가 하는 편이 낫겠다며 대걸레를 낚아채 시범을 보이며 혼쫓을 내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지만 어찌하랴. 달래고 열려서 소제를 마치고 나니 퇴근 시간이 가까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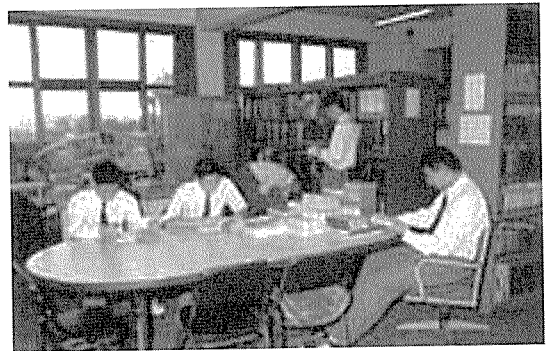
그러나 나에게는 할 일이 더 남아있다. 내일 가르칠 교재를 연구해야 한다. 게다가 복잡한 도서관 업무를 훤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캐비닛을 뒤져 서류철을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렇게 얼마를 움직이고 나니 배가 고파온다. 컵라면으로 출출한 속을 대강 채우고 나서 잠시 명상에 잠긴다. 아무리 바쁘다한들 글쓰는 일을 게을리 할 수는 없는 일, 내 이름 석자로 발간하는 산문집의 축적만큼 쓸쓸한 재미가 어디 또 있으랴.

이러구러 아내에게 전화할 겨를조차 잊은 채 어느새 밤 열 시가 훌쩍 넘어버렸다. 고즈넉한 교정에 깃들여있는 정적. 푹푹 손기척 소리가 들

린다. 올해 고3인 예쁜 딸아이가 학사에서 공부를 마치고 들어선다. “아빠, 가요!” 수척한 얼굴에 치열했던 하루가 언뜻 비친다. 단둘이서 주자장으로 발길을 옮긴다. 목하 어느 부녀지간이 그 시공에 함께 묶여 정겹게 걸어가는 모습이라.

인 문계 고등학교 도구과목 교사이며 도서관장, 사랑하는 한 여인의 남편이면서 두 아이의 아빠, 야간대학원생에다 이름 없는 수필가까지, 그리고 보니 내 곁에 머물러 있는 소임이 꽤나 여러 가지다. 하지만 나는 이 역할 모두가 그닥 싫지 않다. 하여 무릇 일들을 무서워하거나 짜증내지 않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살아있는 한, 나는 집요할 만큼 나의 현재를 두고두고 즐겨워할 참이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도서관인의 이야기를 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서관문화 편집실입니다.
도서관학 및 정보기술의 학술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도서관계의 국내·외소식과 사진, 회원, 인사, 도서관과 관계되는 수필 또는 수기 등을 보내주세요.
도서관인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전화 : 02-535-4868
* 전송 : 02-535-5616
* E-mail : klanet@hitel.net
* 주소 : (137-702) 한국도서관협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